

Ethylene, 드디어 1000달러 돌파!

FOB Korea 1010-1020달러로 65달러 폭등 ... 나프타 405달러 상회

Ethylene 가격은 7월30일 FOB Korea 톤당 1010-1020달러로 65달러 폭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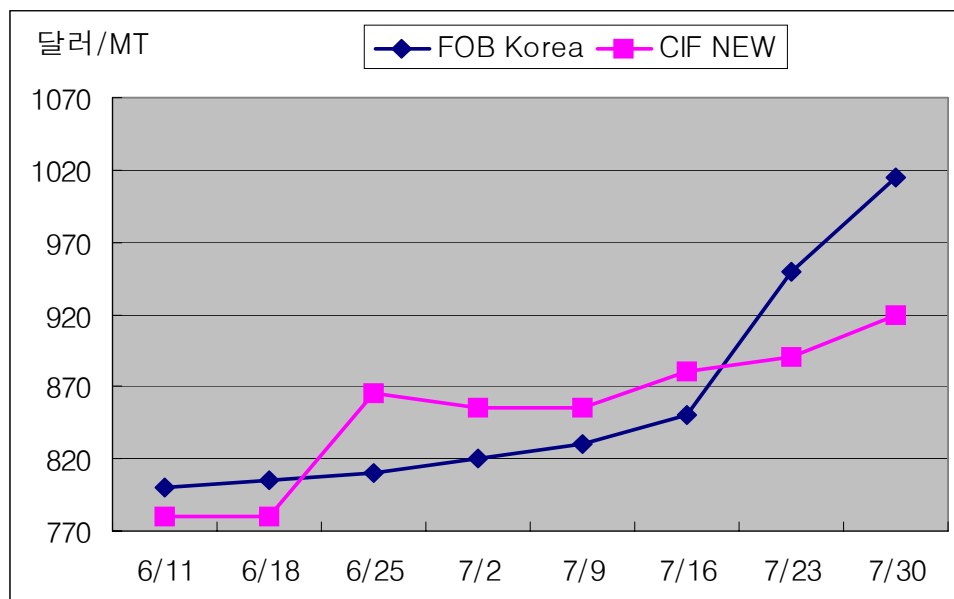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Spot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나프타 가격이 C&F Japan 톤당 405달러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함에 따라 전주에 이어 폭등세를 이어갔다.

나프타 가격급등은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43달러를 넘어서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에틸렌 시세가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MEG 및 Vinyl 체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8월 하순 및 9월 초순 추가 수출물량이 없는 상태인데, PE 메이커들이 에틸렌 가격폭등으로 가동을 조정에 나서고 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7월30일 CIF NWE 톤당 915-925달러를 기록해 30달러 상승했으며, 3/4분기 계약가격은 635유로를 나타냈다.

<화학저널 2004/08/02>